

사회

광주 자살 증가율 최고

2010년 442명 3년새 45% 급증…노인 자살도 늘어

전문 센터 확대·관련기관 협조체계 시급

광주의 최근 3년 새 자살 사망자 수가 45%나 뛰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시 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박상학)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2010년 총 자살 사망자는 442명으로 3년 전인 2008년(305명)에 비해 44.9%가 증가했다. (관련기사 18면)

또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나타내는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2008년 22.1명을 비롯해 매년 전국 평균치 아래였으나 2010년에는 30.7명으로 전국 평균(28.7명)을 웃돌고 있다.

지역별로는 농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산구의 자살률이 32.9명(2010년 기준)로 가장 높았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구의 자살 사망률이 27.1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는 28.5명, 서구 32.3명, 북구 30.2명을 기록했다.

또 70~79세 광주 지역 노인 자살률(인구 10만명 기준)이 2009년 58.9명에서 2010년 89.2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청소년 자살률도 2010년 10.3명을 기록해 인천 10.9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자살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살 시도자나 고민자를 전문적으로 다룰 센터가 극소수이고, 자살에 대처하는 경찰·긴급구조팀과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또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지역에는 현재 자살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기관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동구 젊음의 거리 '비보이 공연' 23일 밤 9시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우체국 앞에서 청년들이 '비보이'(B-Boy) 댄스 공연을 펼치자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고 있다. 동구 구도심이 최근 '젊음의 거리'로 변모하면서 학생과 젊은이들이 '끼'를 발산하는 광경이 되고 있다.

/독자 임동훈씨 제공

광주·전남 닷새째 더위 폭격

구례·나주·화순 폭염경보

광주·전남지역에 닷새째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지면서 구례의 낮 기온이 35.7도까지 오르는 등 이례적인 짐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 날 낮 최고기온은 구례 35.7도를 정점으로 화순 35.6도, 나주 35.3도, 함평 34.5도, 영광 34.2도, 곡성 33.8도, 광주 33.7도, 신안·담양·영암 33도 등을 기록했다. 이는 평년보다 2~3도 가량 높은 수치다.

광주·영광·순천·강진·목포 등 광주·전남 9개 시·군은 올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특히 광주·전남 6개 시군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이날 11시

를 기해 12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오후 4시께 나주, 화순, 구례지역은 폭 업경보로 격상됐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서 끄려운 공기가 유입된데다 강한 일사로 인해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전남지역은 25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 한 때 소나기가 오겠지만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씨가 이를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발표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과학고, 과학영재학교 된다

2014년 3월부터 전환…조기졸업도 가능

광주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돼 오는 2014년 3월 개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광주과학고, 대전과학고를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과학영재학교로 지정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교과부 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다. 고등학교 과정, 무학년 졸업학점제(170학점)로 운영되며, 재학생의 경우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조기졸업도 가능하다.

과학영재학교가 개교하면 지역 우수인재의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교과부 장관 탄핵·해임 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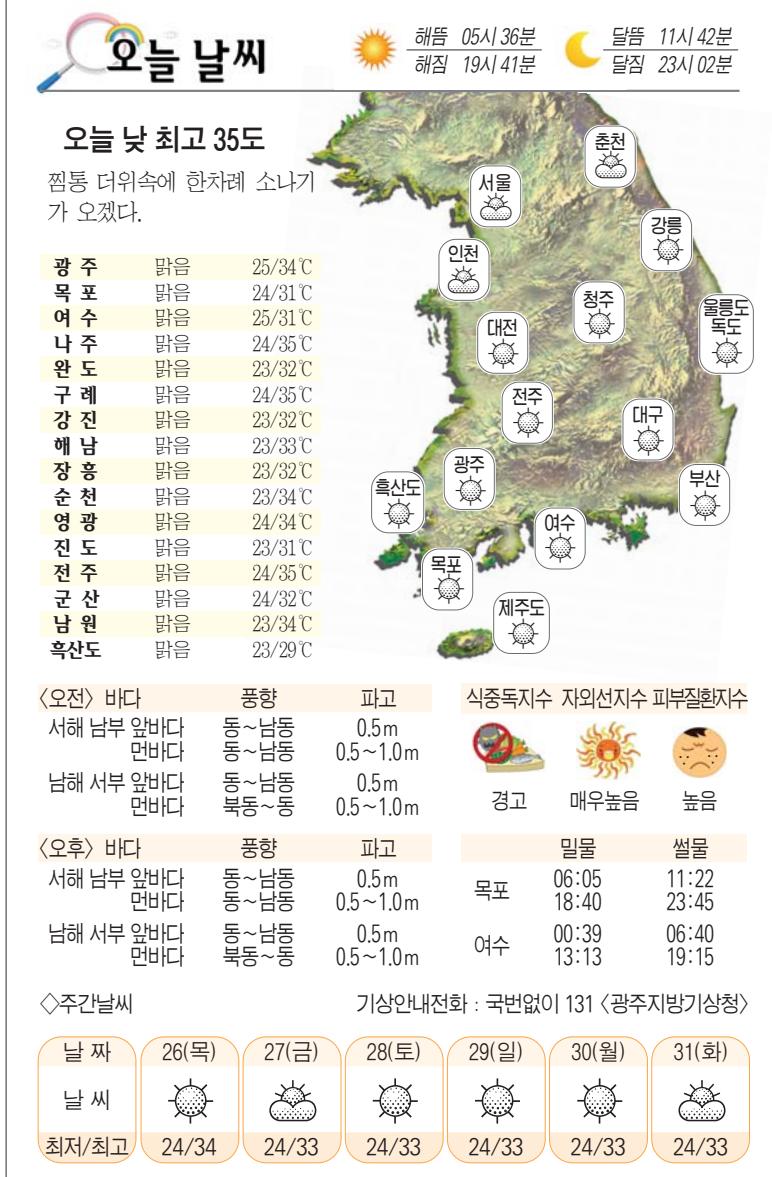
국공립대 교수회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국교련)는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위원·위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박하고 있다"며 국

회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및 해임 건의를 청원했다.

국교련은 회견문에서 "총장 직선제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는 제도이고 대학 민주화의 상징인데도 교과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라는 포장으로 감싸 직선제 폐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남구 다목적체육관 설계

유탑 공모작품 최종 선정



모두 1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남구 진월동 1만3200㎡ 면적에 지어지는 다목적체육관은 오는 11월 착공해 2014년 준공할 계획이다.

특히 진월제, 진월운동장과 연계해 조성되며 수영장과, 농구장, 배구장, 탁구장, 당구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기간: 2012년 3월 15일 ~ 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 본점 062-227-9940 • 충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풍자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 않아 황폐화된 묘, 떼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봉괴된 묘, 개인이기주의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보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게 달하고 있습니다.

● 비변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신사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소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서 거친 자연환경과 천자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장받게 하는 것입니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 드라이빙レン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 연습장 이용시간
- | | |
|-----------|---------------|
| 평일 | 06:00 ~ 23:00 |
| 토요일 | 10:00 ~ 22:00 |
| 일요일 · 공휴일 | 12:00 ~ 20:00 |
- *클레이, 넷째주 일요일 휴무입니다.

SKY 골프 Club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